

건축문화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1.7.140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 동구 학동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 건축물 관리법 등 관계 법 정비 시급

02 시론

학동 붕괴사고와 건축사의 사회적 책무

03 issue

04-05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광주시 의회 주관 정책 토론회 참석
광주건축사회 이창을 前 회장, (사)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로 위촉
광주건축사회, 신임 법률자문위원에 최정희 변호사 위촉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라남도,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목포시, 공사장 및 재난위험 노후 시설물 특별 안전 점검
순천시, 역세권 도시재생대학 2기 운영 나서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익산시장과 완주군수와 간담회 연달아 개최
전북건축사회,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작품 출품 신청 접수
전주시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으로 '관리비 절감'

10

설계경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

11 종합

사랑에서 _ 청춘
건축사 Q&A
건축사 만평

12

독자광장

학생기고 _ 'Paradise Lost - Nuclear Bomb Memorial Island in Bikini Atoll'을 설계하며...

한 편의 시 _ 아름다운 인연
세상사는 느낌 _ '익명성'에 대한 단상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학동 붕괴사고와 건축사의 사회적 책무



박종호 편집인/건축사
건축문화사랑 신문
k21024@chol.com

- 유민 건축사사무소 대표
- (현)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건축학부 출강
- 건축물유지관리전문강사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 광주광역시 학동재개발4구역에서 해체공사 중이던 5층 규모의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넘어지면서 정차해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무려 17명의 무고한 시민이 인명피해를 입은 대형 사고였다. 급작스러운 사고에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고, 사고 직후부터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미 예견된 인재(人災)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감식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각종 언론과 관련 기관에서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을 등한시하는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저마다의 재발 방지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허점을 넘어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본질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뿌리 깊은 사회적 병폐와 인식, 굳어져 버린 관행, 무사안일한 제도 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버린 안전의식, 원칙보다는 이윤과 작업편의를 중시하는 기업윤리, 먹이사슬과도 같은 불법 하도급, 폭력조직과도 유착된 재개발 비리, 현실과 괴리된 부실한 법과 제도,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정당국 등이 이번 사고의 배후에도 어김없이 얽히고설켜 있다는 것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도 그랬고,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도 그랬으며, 불과 2년 전인 2019년의 서울 잠원동 건축물해체공사 중 붕괴사고 또한 그러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기에 유사한 사고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점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바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건축법이 제정된 지도 60여 년이 지났다. 건축법은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 이후 수없이 많은 개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마련했다. 3차원의 다양한 건축공간과 시간이 더해짐에 따라 변화되는 건축물을 성문화된 법령으로 풀어내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개정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 혹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도 적지 않았고,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를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개정도 제법 많았다. 특히, 구조적 안전이나 화재 안전 및 피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폭 강화되었고, 별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주택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화하거나 특성화하기도 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70~80년대 경제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건축물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에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해체 및 멸실에 관한 규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법제화되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을 살펴봄으로써, 이번 학동재개발 4구역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법과 제도적 시스템에 관한 허점을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대안을 찾는 것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건축물 해체감리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번 학동재개발4구역 건축물 붕괴사고 또한 형식적이었고 허술한 건축물관리법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적 시스템이 현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오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가 현장의 여건과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관례 혹은 작업 편의성을 이유로 현장에서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가령, 허가권자에 의해 해체감리로 지정되어 건물주(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와 계약한 후, 해체계획서를 받아서 검토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해체공사를 시작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토한 후 보완을 요구하더라도 수정된 해체계획서를

다시 승인받는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체업체가 해체감리의 요구를 묵살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정작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행정 절차를 밟는 사이에 해체공사는 완료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건물주는 신속한 해체공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해체감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해체공사에 있어서 법과 제도가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해체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헛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착공신고 과정이 없었다는 점, 공정표 작성 및 현장관리자의 자격요건도 부실하다는 점, 해체감리의 상주와 비상주 기준이 없었다는 점, 해체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이 없었다는 점, 해체감리의 책임과 의무가 너무 포괄적이었던 점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정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로 법 개정 내용에는 해체감리 용역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건물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한다.

또한, 지난 7월 1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도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을 통해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해체심의위원회 신설, 해체공법 탐다운공법 적용, 구조안전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상확대, 해체감리 배치 기준과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현장의 여건과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 혹은 땀질식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권위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대안이라 평하고 싶다.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건축물을 짓거나 고치거나 해체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다양한 전문분야가 관여한다. 건축은 기본이고, 건축구조, 기계설비, 전기·통신·소방설비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적인 절차와 실제공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해체장비의 사용 용도와 공사 여건 등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며, 관련된 전문분야는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뿐만이 아니라 건물주, 지자체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는 기본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에서부터 일당을 받는 노무자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건축 관련 산업이다. 것처럼 수많은 분야와 사람들이 관여하고,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도록 법에서 정해 준 것이 건축사다.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의 전문가다. 그래서 건축사를 오케스트라 지휘자 혹은 합선의 선장라고도 한다고 한다. 건축사는 다양한 음색을 가진 여러 가지 악기를 조율하여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는 지휘자와 같다. 관객은 건축주와 국민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선장라고도 같다.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모든 국가에서 건축사라는 전문가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건축사의 지위와 자격 및 업무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이번 학동재개발 4구역 건축물 붕괴사고에 따른 대책 수립에 반드시 건축사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감리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해체감리자가 혹은 모든 건축전문가를 매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동재개발 4구역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과 시민 앞에 건축전문가로서 진심으로 위로와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광주 동구 학동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 건축물 관리법 등 관계 법 정비 시급

-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중 도로변으로 붕괴, 17명 사상
- 해체공사 불법 재하도급 업체가 해체계획서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 공사 진행
- 광주시, 면밀한 검토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 성급한 시행 논란, 관련 규정 미흡...

▶ 사고 개요(해체계획서 미준수)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도로에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구 학동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 발생 현장〉

사고 원인으로는 해체계획서에 나와 있는 고층부터 아래로(툽다

운) 해야 하는 작업절차를 어기고 아래층 먼저 철거작업을 진행한 부분과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을 분사하여, 물과 토사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굴착기(30톤)가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와 토사의 하중이 건축물 쪽으로 쏠리면서 건축물 외벽이 도로 방향으로 전도되어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이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건설산업기본법·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총 22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건설사 현장소장과 철거작업 굴착기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도 감리 소홀에 따른 건축물 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 사고 원인의 본질은 불법 재하도급

사고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는 해체공사의 작업절차를 진행한 회사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광주지역 업체 A사로 밝혀졌다.

경찰이 밝힌 건축물 해체공사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일반건축물 51억 원, 지정건축물(석면) 22억 원, 지장물 25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이 중 일반건축물, 석면 철거 공정을 A사가 진행했다.

원청인 B건설사가 지정 협력업체 16곳 중 최저가 입찰안을 써낸 서울 소재 업체 C사에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을 줬다.

C사는 건축물 해체 전문업체인 D사와 전국적 사업 규모를 갖추고 이면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는 일반 건축물 철거비를 '7대 3'으로 나눈 뒤 실제 공사는 광주 지역 업체 A사(사실상 1인 기업)가 도맡게 했다.

대부분의 전국 건설 현장에서는 암암리에 '불법 재하도급'이 몇 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단가 후려치기'를 하거나 저가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뤄진다.

결국 저가에 수주 받은 A사가 공사비를 만회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저렴한 방식을 이용하여 부실 철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되어 해체계획서에 따라 건축물 철거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고 안전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는 E 건축사도 부실하게 관리 감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 광주광역시건축사회에서는

동구 학동 사고 발생 즉시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긴급한 인명구조 상황에 현장 지원을 못하고 다음 날인 10일 현장 지원에 나섰다.



〈현장 지원 나선 정인채 회장과 자문단〉

현장 지원 자문단에는 정인채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재난안전지원단 권광태 단장과 광주건축사회 안전도시재생위원회 서재형 위원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사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자문을 진행했다.

또 지난 6월 17일 안전도시재생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붕괴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철거업체의 해체계획서 미준수와 부실하게 작성된 해체계획서',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건축물감리 상주·비상주 기준 미비',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작업중지 권한 미부여', '건축물 관리법상 감리자에게 제한적 권한과 막중한 책임만 부여', '대로변 건축물 철거 시 보·차도

점용허가 미의무화, '허가담당 공무원의 형식적인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등 허가 행정', '철거업체의 불법하도급 및 이에 따른 무리한 해체작업' 등이다.

이에 대해 안전도시위원회는 '표준화된 해체공법과 매뉴얼 개발', '안전을 위한 상주감리화', '해체공사 감리자와 현장 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비 현실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보수교육 강화', '감리자 지정방식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했으며, 전국 건축·건설 현장의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대한건축사협회에도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광주건축사회는 안전도시재생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고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 광주광역시(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 마련)

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을 마련해 5개 자치구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	구분	내용	
제4조	해체심의위원회 기능	- 소로2류(8m) 이상에 접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의 해체계획서 등 심의 - 소로2류 이상에 접하는 3개층 이상 신고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등 심의 - 탑다운공법 미적용 해체계획서의 공법 적정성 심의	
	해체심의위원회 구성	- 3명(구조·시공 교수 각 1명, 건축구조기술사 1명) 이상	
제5조	해체계획서 검토	심의방법	- 대면심의 원칙(소규모 건축물은 허가권자 재량(서면심의 가능)) - 검토자격: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사 제외) - 소로2류 이상에 접하는 3개층 이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건축물 붕괴 시 전면도로에 미치는 영향검토 및 보행자차량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허가신청 시 현장점검	- 해체허가대상: 해체허가신청서 접수 시 허가권자 현장점검 의무화 - 해체신고대상: 소로2류 이상에 접하는 3개층 이상 건축물의 해체신고서 접수 시 허가권자 현장점검 의무화
제6조	착공예정일 현장점검	-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점검 - 안전관리대책 이행여부 확인 후 공사착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와 상주감리 계약체결	
제7조	상주감리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준용 - 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 배치 가능	
	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 법령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외 소로2류 이상에 접하는 3개 층 이상 건축물을 감리지정대상에 포함	
제8조	해체공사감리자 업무	- 상주감리현장 이탈불가, 부득이 이탈 시 공사중지 - 감리자 현장확인 후 안전에 이상이 없을 때 공사재개	

▶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하는 광주광역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건축전문가 배제 논란)

지역 건축계에서는 광주광역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지침이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만들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광주의 10명 내외의 소수에 불과한 구조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해체심의위원으로도 참여하며, 안전진단 업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 기술자격자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또 관계 법에서는 해체작업에 대한 공사 작업중지 명령을 해체공사감리자가 아닌 허가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업무지침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공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상주감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업무 대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감리자 지정 방식도 현재 조례에서는 무작위 추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확하고 투명한 지정 절차가 제시되어 감리자가 선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한번 지정된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교체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역 한 건축전문가는 "광주시가 내놓은 해당 업무지침은 동구 학동의 사고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작성한 지침으로 해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관계 전문가와 협의한 지침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대해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도 "건축물 관리법 제30조3항에 의거 건축사도 해체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광주광역시는 해체계획서 검토에서 건축사를 배제한 것은 명확한 법 위반 행위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해당 지침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침은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해체공사 안전 분야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별도로 지침을 폐쇄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ick, Jinwol

박주현 건축사 / 바움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서문대로749번다길 33, B101
 Tel. 062-654-3376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33-14 / 대지면적 : 183㎡ / 건축면적 : 108.8㎡ / 연면적 : 378.14㎡ / 건폐율 : 59.45% / 용적률 : 164.50%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용도 :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지장벽돌쌓기, 리얼징크마감

진월동 푸른길과 금당산 사이 경사진 주택지에 위치한 대지는 오래된 아파트와 단독주택, 교회로 둘러싸여진 동서측으로 3m 이상 차이 나는 경사지였다. 경사진 대지를 활용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길을 내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은 시작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지하 1층 공간이 만들어졌다.

지하 1층 &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원룸 및 투룸 3가구, 3~4층은 복층형 1가구로 구성이 되었으며 건축주가 함께 살면서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수단으로의 역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주와 임대인이 누리는 공간의 질을 최대한 높힐 수 있도록 많은 건축적 아이디어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남측경사지를 이용한 외부계단은 지하층으로 진입하는 동시에 빛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쾌적하고 독립적인 진입로를 만들어 주었고 상부층 주거 공간과의 수직적 동선을 분리시켜 주거 공간 임대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하였다. 또한 매스가 지닌 볼륨이 동네가 가지고 있던 거리에서 모습을 과감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벽 전체를 허니브라운색상 벽돌치장쌓기로 마감해서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기를 희망해보았다.



지하 1층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지상 4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대안이 아니다. 솔루션이다!
 강력한 솔루션 국산카드

마이다스카드 아키디자인



아키디자인 반짝 프로모션



midas ArchiDesign 특가 안내

1년	60만원 1Lic, VAT별도	3년	180만원 140만원 1Lic, VAT별도	5년	300만원 200만원 1Lic, VAT별도
----	---------------------	----	--	----	--

아키디자인 정가 60만원/년

※ 2017년도 이후 개설된 건축사사무소는 창업지원혜택으로 추가할인 가능!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전화문의 | 1899-9260 홈페이지 | www.midasCAD.com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광주시의회 주관 정책 토론회 참석

지난 6월 15일 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광주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방안 마련 발제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이 지난 6월 15일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8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광주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방안 마련 발제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 김익주 시의원이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로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인채 회장을 비롯하여 이창울 건축사(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 남승진 원장(건설문화교육원), 서재형 건축사(광주 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 김형환 과장(서구청 건축과), 이봉수 소장(현대계획연구소)이 참석했다.

정인채 회장의 발제문 발표 후, 김익주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주체는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주택정보를 통해 그 진행 과정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이해하며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이렇게 될 때 우리 시 건축문화는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공시제도를 통해 건축과 주택의 건립과정에 대한 정보를 시작부터 준공까지 공개하고자 하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행정상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실질적인 실행 방법이나 정보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채 회장은 이 자리에서 "건축정책 특성상 하나의 제도에 변화를 주면 나비효과처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밝히며, "해당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선제적인 건축 주택행정 제도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어 우수 건축주택 행정 제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이창울 前 회장, (사)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로 위촉

올해 초 위촉... 2022년 12월까지 2년 임기, 2019년에 이어 감사 연임



광주지역 회원이자 제9대 광주건축사회장을 역임한 이창울 건축사(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가 (사)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사)한국건축정책학회는 제4대 회장단을 구성했는데 회장에 열린모임건축사사무소 전영철 건축사를, 수석회장에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이명식 교수를, 감사에 이창울 건축사와 경일대학교 현택수 명예교수로 구성한 것이다. 이창울 건축사는 2019년 제3대 회장단에서도 감사로 위촉된 바 있다. 임기는 2022년 12월까지 2년이다.

(사)한국건축정책학회는 국가건축전략, 건축정책, 건축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토론, 제언 등의 활동을 통해 건축 및 관련 산업의 선진화와 대국민 건축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단체이다.

광주건축사회, 신임 법률자문위원에 최정희 변호사 위촉

지난 6월 21일 제6회 이사회의 개최하고 위촉 의결... 임기 1년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6월 21일 제6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신임 법률자문위원에 법무법인 가현 최정희 대표변호사를 위촉 의결했다.

최정희 변호사는 1992년 광주 인성고와 1998년 전남대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전남대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를 수료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06년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했으며, 2014년 동구청 공직자윤리위원, 서구 의정비심위원, 2015

년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 2020년 광주지방변호사회 제1총무이사로 활동했다.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임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 법무법인 가현 / Tel : 062-236-0222, Fax : 062-236-0608

광주건축사회, 실비정액가산식 산출 프로그램 구축

업무지원 통합사이트도 개설... 메인 홈페이지 배너 통해 접속 가능

구분	단위	실비정액	가산비율	산출액
건축공사	㎡	100,000	10%	110,000
기계설비	㎡	200,000	10%	220,000
전기설비	㎡	150,000	10%	165,000
배수설비	㎡	120,000	10%	132,000
기타공사	㎡	80,000	10%	88,000
합계		550,000		605,000

함께하는 광주건축사회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7월 6일 회원사 공지를 통해 실비정액가산식 산출프로그램 구축 및 업무지원 통합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한 업무대가 산출프로그램은 회원사가 상주감리비, 설계의도구현, 해체공사 상주감리비 산출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며, 업무지원 통합사이트도 그동안 별도로 클릭해서 접속해야 하는 건축사 업무대가 산출 및 감리자 지정 업무 등 회원 지원 업무에 대해 한 화면의 사이트에서 쉽게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설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실비정액 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 사이트를 비롯하여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업무대행 프로그램, 감리자 지정 프로그램, 건축문화사랑, 설계감리 업무대가 산출참고 활용, 설계의도 구현 업무대가 산정, 국가법령 정보센터,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감리웹 프로그램, 광주건축사 연금관리회 등의 사이트가 한 화면에 담겨져 있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회원의 원활한 업무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사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무심는 건축인, '2021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광주 소재 아름다운 공간 대상



광주광역시와 나무심는 건축인(대표 박홍근 건축사)이 광주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장려하기 위해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를 올해도 진행한다.

공모대상은 건축물 공개공지, 담장으로 및 씬지공원 벽면 및 옥상녹화, APT 등이며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공모 작품은 A3 규격에 설명서와 장소 내용 사진을 포함하여 5매 이내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2곳에는 광주광역시상과 기념 동패가 수여되며,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제1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전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심는 건축인으로 문의(Tel. 062-383-0925) 바란다.

광주광역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 사업 안내

광주광역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에 따라 건축물 설계 반영 시 보조금이 지원되오니 건축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22344번 참조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강효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강남 /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골든빌 304호
- **변경(사무소명)**
- 정영법 건축사 / 로운 건축사사무소 → (주)로운 건축사사무소
- **변경(사무소명&소재지)**
- 양동윤 건축사 / 에이디 건축사사무소 윤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1동 701 A호



형도주차프라자
전인천 건축사 / 다르다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원형동로 25, 301호
Tel. 061-285-7908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18번지 / 대지면적 : 2,002.60㎡ / 건축면적 : 1,596.42㎡ / 연면적 : 7,552.17㎡ / 건폐율 : 79.72%
용적율 : 377.12% / 규모 : 지상 5층 / 구조 : 일반철골조 / 주요 마감 : A.L시트패널, THK30화강석, 스타코

전라남도,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연계 추진으로 도민 수혜 증가 기대



전라남도는 농어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장판 등 경보수 및 화장실, 욕실, 부엌 등 중보수로 구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지원한다.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의 주택을 자원봉사단체에서 고쳐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15년부터 19개 시군 628가구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올해는 15개 시군 147가구가 선정됐으며, 목포 미항주거복지센터 등 도내 10여 봉사단체의 재능기부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참여시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 보수를 실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20)로 문의바란다.

목포시, 공사장 및 재난위험 노후 시설물 특별 안전 점검

지난 6월 말 건설 중인 공사 현장 16개소, 노후 시설물 8개 등 중점 점검

목포시가 지난 6월 말 관내 대형 공사장 및 재난위험 노후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건설 중인 공사 현장 16개소와 재난위험 노후 시설물 8개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6월 28일까지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건설 중인 공사 현장은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이행 여부, 기초지반 절토부 및 굴착사면 안정성, 공사 현장 주변 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재난위험 시설물은 주변 침하, 건물 기울임, 균형상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된 곳에는 위험구역 지정 및 긴급대피 명령 등을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역세권 도시재생대학 2기 운영 나서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5회 과정으로 진행

순천시는 3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역세권 주민 및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2021 역세권 도시재생대학 2기' 수강생을 지난 7월 9일까지 모집했다.

'역세권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콘텐츠 모색을 통해 주민 역량 강화 및 지역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5회 과정으로

비대칭 EQ 합성보(진동, 응력 우수)

EQ공법

- ▶ 일반철골구조에 비해 진동성능이 우수 (최대 45% 향상)
- ▶ 철골 공사비 40% ~ 15% 절감
- ▶ 접합부 내진 성능 및 응력 크기 향상
- ▶ 불필요한 중간기둥 없이 무주공간 활용 (공간 활용성 우수)
- ▶ 주차타워, 상가, 물류창고 적용시 공간활용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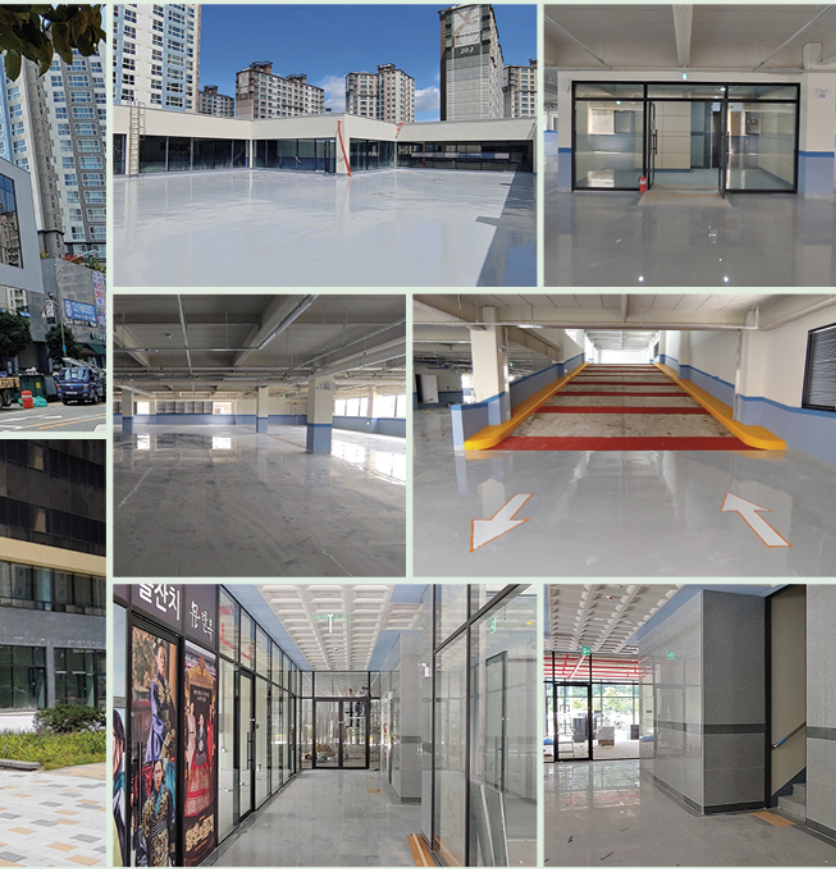
건축구조
기술사회
기술인증서
획득

한국구조물진단
유지관리공학회
기술인증서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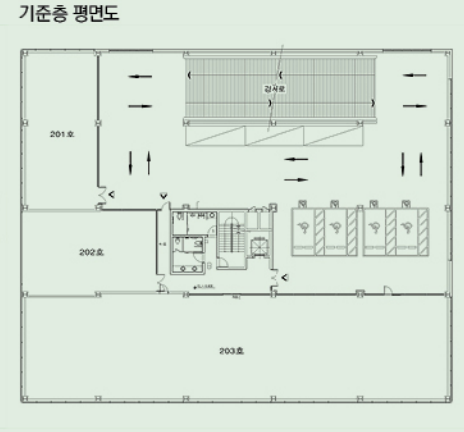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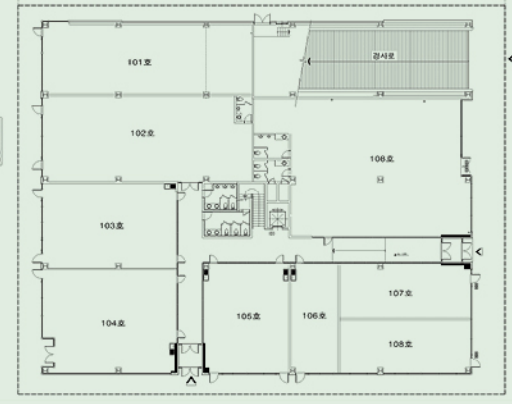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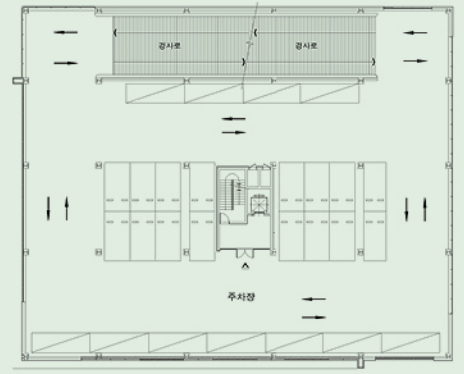
관내(강구조,
건설사, 시행사)
누구나
사용 가능

무료
철골구조
경제성 검토

문의전화 1666-5123



“ 남악신도시 공동주택(주상복합) 밀집 지역 내의 주차 전용 건축물로서 건물 내의 상가 및 인접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의 차량 통행과 보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인접 건축물들과 어울릴 수 있게 매스를 계획하였다. ”



진행되며, 3단계 도시재생 역세권 사업지구 내 거주 주민 또는 생활권자들이 신청했다. 교육내용은 도시재생 이론 및 현황, 지역자원을 이용한 지역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제안서 작성 및 예산교육, 사업계획서 컨설팅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순천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확대 시행

지난해 보다 43% 증액된 23억 원 확보... 취약계층에는 전액 지원 등

순천시(시장 허석)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43% 증액된 23억 원을 확보하여 주택은 물론 창고나 축사의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비가 전액 지원되며, 지붕개량 또한 1,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줄였다.

또한 비주택 건축물(창고, 축사)은 철거지원 슬레이트 면적이 기존 50㎡에서 200㎡까지 확대함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건축물 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해당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슬레이트 처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군,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현장 조사 실시

9월 말까지 현장 조사 실시... 해체 및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 대상



함평군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지난 7월 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3월부터 건축물 대장,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실

시한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의 기초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달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비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해체 및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소유자, 건축용도, 사용여부, 건축면적, 슬레이트지붕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지난 2013년 실태조사 당시 조사가 미흡했던 미등재 건축물,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등으로 자연 감소한 물량, 대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9월 말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조사 결과를 입력해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원들이 실태조사를 위해 주택이나 축사, 공장 등에 방문 시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군,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오는 7월 23일까지 실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을 전면 조사한다. 조사는 이달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군은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항목을 조사한다.

토지 특성 조사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와 공간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 후 변동 내역을 개별 토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남 회원동정

•입회

- 김윤오 건축사 / 마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1동 612호
- 김태식 건축사 / 마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1동 612호
- 김힘찬 건축사 / (주)정원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도원로 265, 2층
- 서길남 건축사 / 팀에이 종합건축사사무소(주) / 전남 나주시 중앙로 34, 502호
- 이영은 건축사 / 화진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한빛로 262, 2층 201호

•변경(소재지)

- 백재봉 건축사 / 백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입암로4번길 21, 301호
- 문금호 건축사 / 서해 건축사사무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63
- 문은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필 / 전남 순천시 대석초등길 46, 2층
- 박수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동행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709호

전북건축사회, 익산시장과 완주군수와 간담회 연달아 개최 신속한 건축 행정 처리 및 대관위원회에 건축사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도



전북건축사회(회장 박진만)는 지난 6월 24일 익산시장에 이어 6월 30일 완주군수와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전반적인 건축행정 부분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6월 24일 익산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정현율 익산시장과의 간담회에는 박진만 회장과 익산지역건축사회 김경태 회장 및 전북도회 임원진, 시청 건축 및 도시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6월 30일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박성일 완주군수와의 간담회에는 박진만 회장과 완주지역건축사회 조영수 회장, 회원 및 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전북건축사회는 건축행정 업무가 중시되는 추세에 따라 건축직 인원 충원과 건축민원부서의 잦은 인사이동 지양 및 장기근무자 인사사고 반영, 건축신고·허가 민원부서(건축과)의 신속한 업무처리, 대관위원회에 건축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진만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이 요청하는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발전과 건축사가 함께한다는 의미로 건축사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함께 힘써주시는 김경태, 조영수 지역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지역 회장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자리가 필요하여 신청해 주시면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건축사회,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작품 출품 신청 접수 오는 7월 23일까지...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출품도 동시 신청 가능

전라북도가 지난 6월 29일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한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공개모집 함에 따라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작품 출품 신청 접수에 나섰다.

해당 건축문화상 작품은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에도 출품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동시에 신청 접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품작은 7월 31일까지 준공된 작품에 한하며 출품자 본인이 직접 패널(A0)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방식과 출품자 본인이 패널 크기로 패널 편집까지 완료된 작품을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 출품자가 출품작을 지정하여 전북건축사회에서 패널을 제작하는 방식 등 3가지 중 선택하여 출품할 수 있다.

해당 방식 중 직접 패널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방식 외에는 출품료가 있어 별도 확인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건축사회 홈페이지 공문시행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작품 접수는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이며 건축문화상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보-알림마당-공고/고시) 및 전북건축사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전북건축문화제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으로 '관리비 절감'

공동주택 무료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당초 금액보다 약 11.6% 낮게 체결 도와

전주시가 건축·토목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원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한 '계약심사제도'를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무료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올 상반기 동안 실시한 결과, 공사 입찰 시 당초 설계금액보다 약 11.6% 낮게 계약을 체결하는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이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시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일부 업체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으로, 공사와 용역 5천만 원 이상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신청 여부를 결정한 뒤 관리주체가 설계도서 등을 갖춰 전주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문 대상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해 그 결과를 공동주택에 통보한다. 자문 결과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전주시, 건물 해체공사 관리 제도개선 정부 건의

시, 감리자 상주 등 4가지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전북도 통해 국토부 건의

전주시는 철거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4가지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북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6월 25일 밝혔다.

최근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김창호 건축사 / (주)대성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선화로 259
Tel. 063-841-1203

대지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66번지 외 6필지 / 대지면적 : 3,397㎡ / 건축면적 : 918.76㎡ / 연면적 : 4,042.03㎡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일반철골조 / 주요마감 : 압출성형시멘트판 + 콘크리트 블럭

한 취지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이번에 건의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신고대상 해체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허가대상 해체공사의 상주 감리제도 도입 △대규모 해체공사 심의제도 도입 △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강화 등이다.

시는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허가대상 해체공사와는 달리 신고대상 해체공사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감독 기능이 약한 만큼 신고대상 해체공사에도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돼 있으나, 해체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상주하는 만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상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공사보다 구조안전이 중요함에도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절차가 없어 철거공법이나 안전조치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해체 규모에 따라 적격업체가 해체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 및 기술 능력 보유 여부에 따른 등록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도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해체공사 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고 해체공사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 도토리골 새마을사업 '순조'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가로등·방범용 CCTV 설치, 쉼터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진북동 도토리골 새마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7월 1일 밝혔다.

새마을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빈집 철거, 가로등·방범용 CCTV 설치, 쉼터 조성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생활 여건을 좋게 만드는 사업으로, 도토리골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내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된다.

시는 가로등과 방범용 CCTV 설치, 집수리 사업 등을 완료한 상황으로, 현재 재해예방 및 빈집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놀이터를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2개소와 쉼터 1개소를 조성하는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연계 및 돌봄 프로그램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곧 돌아올 초복에는 전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삼계탕과 과일, 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이후 국제와이즈맨, 풍남로타리클럽, 전주연탄은행, 새마을부녀회 등 14개 기관에서 3천만 원 상당의 식품키트(쌀, 라면, 미역), 김장김치, 전기장판, 이불, 선풍기 등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시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해비타트의 협

업과 KCC, 코맥스 등의 현물 후원을 통해 39가구에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도토리골 새마을에서 추진한 주민 돌봄 프로그램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 등이 향후 새마을 사업의 표준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5년 팔복동 추천마을(총사업비 72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 풍남동 승암마을(43억 원), 2019년 진북동 도토리골(43억 원), 2020년 남노송동 마당재(43억 원), 올해 동완산동(42억 원) 등 5개 지역에서 새마을 사업을 전개해왔다. 총 사업비 규모는 243억 원(국비 170억 원)이다.

익산시, 도심 고층 건축물 건립 '제한' 나서

7월 2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공고

익산시가 도심 경관 관리와 조망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 건립 제한에 나선다.

시행될 시 적용 범위는 상업·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에서는 40층 이상,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기타 준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해당 원칙을 통해 도시기본계획·경관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층수(높이)기준, 공간구조 등이 고려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고층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 공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게시된 양식으로 의견을 작성한 후 익산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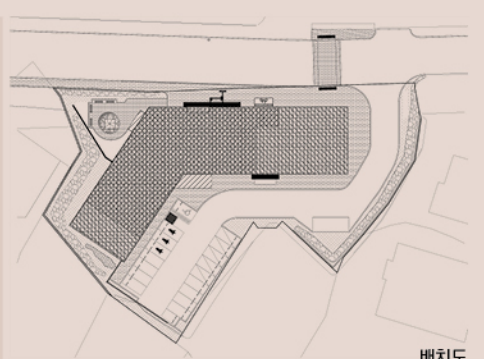
공고 기간 내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 회원동정

- **변경(사무소명)**
- 오경택 건축사 / AUD 건축사사무소 → ㈜엠블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이종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추남로 70, 202호
- 양정호 건축사 / 정플러스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77, 2층
- **결혼**
- 황금정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6월 26일(토)
- 형덕웅 건축사 / 무주아키브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07월 04일(일)
- **부고**
- 이용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인 / 모친상 - 06월 05일(토)
- 고대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지오 / 모친상 - 06월 07일(월)



전주시 백제대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위에 녹지공간과 근영여중, 고등학교, 전주화산체육공원 사이에 신축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쾌적한 공간조성과 주변 녹지와 고저 차를 극복하여 전주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창출을 하였으며, 경관 확보와 차폐완화 및 접근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했다. 내부는 수평적인 공간과 수직적인 공간을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도서관은 조용하고 엄숙하다는 기존의 이미지와 분위기에서 탈피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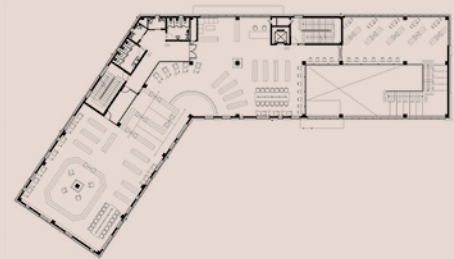
배치도



지하 1층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지상 4층 평면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

빛가람 혁신도시의 이전기관 입주자 대부분 완료되고 입주민의 증가에 따라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로서, 특히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행정·문화·체육 등을 복합화한 SOC 공간을 조성하여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제고하여 나아가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이끌어가기 위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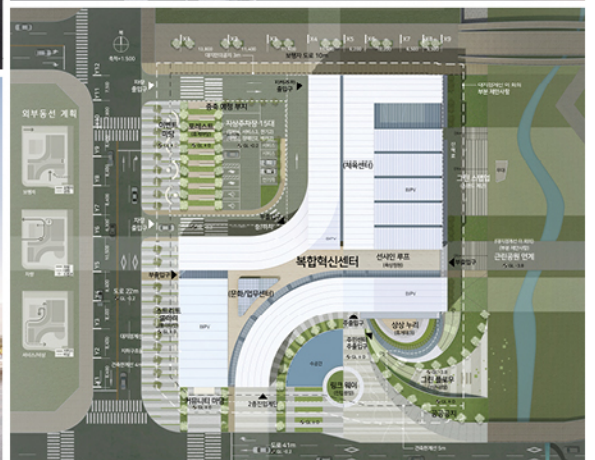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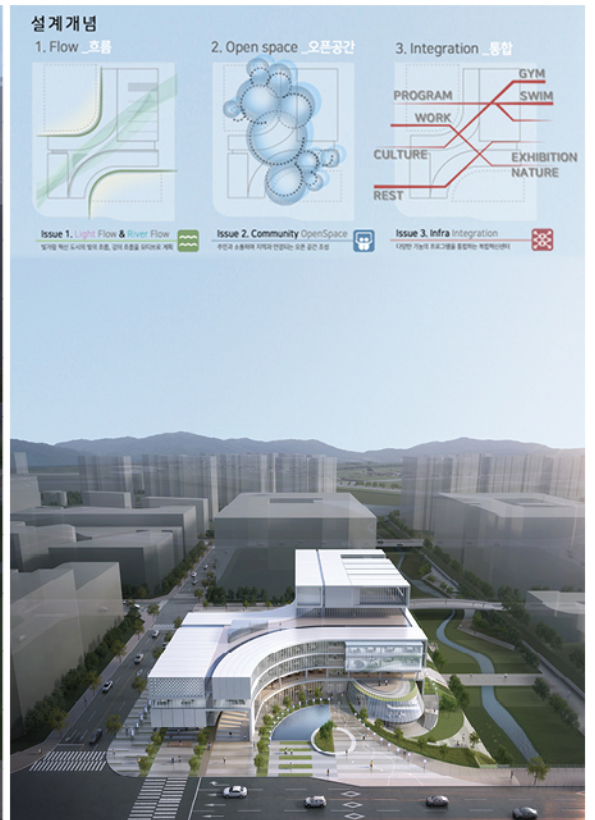
심사위원 : 김진욱(서울과학기술대), 봉주희(가천대), 정지영(신라대), 이진석(한국교통대), 박상윤(㈜건상스페이스건축), 손기영(울산대), 최 열(경북대)

-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99번지
- 연면적 : 20,223.35㎡
- 대지면적 : 9,085.00㎡
-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 건축면적 : 4,418.81㎡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당선작 :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기타입상작 : 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출
기타입상작 : 종합건축사사무소 림
* 자료 미제출

당선작

이주경 건축사 /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 이길환·김완중 건축사 /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 광주광역시 제57호

안전진단전문기관

바오건설기술단(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입니다.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은 정기점검과 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대표자 : 정태호/건축사
대표자 : 염환석/구조기술사

▶ 주요업무 :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건축물보수보강/구조계산

▶ 주요분야 : 건축/교량/터널/수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30동 208호
대표전화 : 정태호 010-3602-3378

사랑에서 _ 여든 번째

청춘

며칠 전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금 두 돈 가격이 입금되었다. 모임 회비에서 전체 회원들에게 회갑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한다. 시골에서 태어나 한 반으로 초등학교 6년을 보냈던 친구들이다. 나이 차이가 있다. 위아래로 한두 살 차이가 난다. 그래도 친구다. 코로나19로 모임 수 없으니, 올해 회갑인 친구를 기준으로 모두에게 회갑 선물을 한단다. 비록 각자 낸 회비에서 주는 것이지만 받으니 좋다. 그러나 씁쓸했다. 그새 환갑. 필자는 내년이 환갑이다. 환갑,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환갑을 넘긴 사람은 노인이었다. 지금은 칠순이 지난 사람들도 나이가 별것이나 하며 노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얼마 전 배우 윤여정 씨는 73세의 나이에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인생을 나이로 청춘과 노인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과 마음가짐에 따라 영원히 청춘으로 살 수 있다는 시가 있어, 나에게 용기를 준다. 백여 년 전에 저세상 사람이 된 사무엘 울만(Samuel Ullman, 1840~1924)의 <청춘>이라는 시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닌, 사람의 마음가짐을 뜻한다네// 청춘은 장밋빛 불,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한다네// 청춘이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리고 탁월한 정신력을 뜻한다네// 때로는 예순 살 노인이 스무 살 청년보다 더 청춘일 수 있다네// 세월이 흐른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는 것이라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으로 채워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네//...//그대 가슴 속에 안테나가 무너지고, 정신이 냉소와 비판의 눈으로 덮일 때, 그대가 비록 스무 살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이지만/ 가슴 속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희망을 품고 있는 한, 그대가 비록 여든 살이라도 죽을 때까지 청춘이라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항변도 한다. 그러나 퇴직한 친구, 더러는 퇴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친구들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그리하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닌, 사람의 마음가짐을 뜻한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본다. 내가 지금 나를 청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시기라는 것에...

‘가슴에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희망을 품고 있는 한, 그대가 비록 여든 살이라도 죽을 때까지 청춘이라네’처럼 희망을 품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키워보면 어떨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나의 선택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희망을 품고, 키우고, 청춘으로 살아야겠다. 우리, 함께 해 보시죠.

자문위원 _ 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건축사 Q&A

▶ 2021년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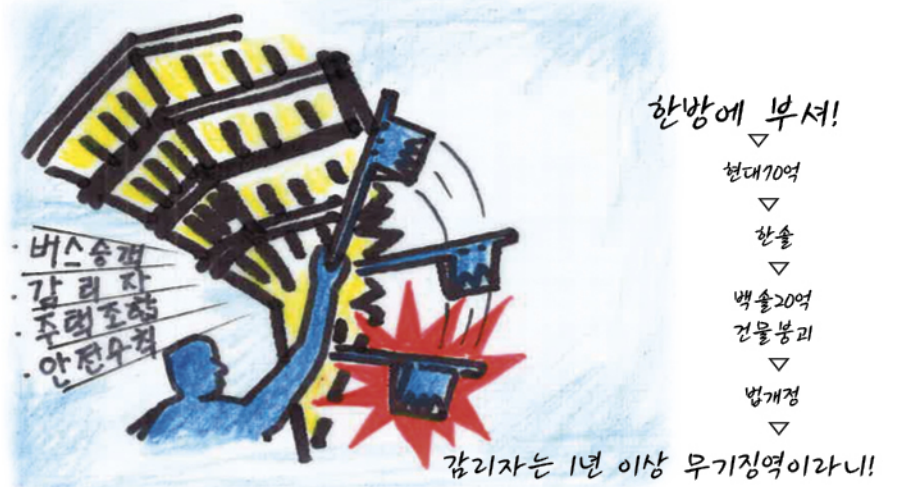
국도교통부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와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사실상 폐지하고,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전환을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2021. 7. 1.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2020.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2023. 12. 31.까지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의 전환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설물등록업은 자동말소됨으로 그전에 관련 요건을 갖춰 업종전환을 신청해야 종전 시설물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최대 50%까지 높아져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건축물의 증축이나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개보수 등의 많은 업역을 담당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무분별하게 많이 발생되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어 개정 및 시행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7천 2백여 개 사업자, 6만 9천여 명의 생존권에 맞서 대규모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어 변경된 내용에는 최근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 만평 _ 김유지 건축사 작 / (주)유지 건축사사무소(광주)/건미희



법무법인 가현 www.welaw.co.kr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85번길 11-9
T . 062-236-0222
F . 062-236-0608
M. 010-3000-6028
E . choi092@hanmail.net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최정희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상속·이혼·후견)전문변호사
- 광주 인성고 졸업, 전남대 법대 및 대학원
-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민사법학회 감사
- 광주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광주지방법원 행정심판위원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
- 광주 동구청 공직자윤리위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 전남개발공사, 광주안과병원 자문변호사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박종호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옥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전담기자: 곽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700,000원
- 하단광고: 350,000원
- 하단1/2광고: 200,000원
- 구독료: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대광판별: 350,000원
-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이본석 법률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학생기고 _ 이 들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Paradise Lost - Nuclear Bomb Memorial Island in Bikini Atoll’을 설계하며...



건축학과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품은 무엇일까? 가장 처음 설계한 작은 화장실일까? 아니면, 여름방학 동안 몰두한 공모전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은 졸업작품을 선택할 것이다.

필자도 5학년이 되어 졸업작품을 한 학기 동안 준비하였다.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작품이기에 지금껏 배운 모든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주제 선정부터 신중하였다. “최첨단의 디지털 도서관을 설계할까?”, “멋진 입면의 상업시설을 설계할까?”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작품인 만큼 가장 학생다운 도전적인 작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필자가 선정한 졸업작품 주제는 ‘핵무기 기념관’이다.

졸업작품을 위해 선택한 대지는 태평양 마셜제도의 ‘비키니 환초(Bikini Atoll)’이다. ‘비키니’라는 수영복의 이름은 이 환초에서 유래된 것이다. 기념관(Memorial)을 설계하기에 앞서, 하나의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 섬 전체를 하나의 기념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즉, 핵무기 기념섬(Nuclear Bomb Memorial Island)을 디자인한 것이다.

대지분석에서부터 난항이었다. 비키니 환초에 관한 국내 정보는 극히 드물었다. 그리하여 눈을 돌려 해외 자료를 찾아보았다. Youtube, Vimeo 등의 동영상 포털을 탐색하기도 하였고, 마셜제도의 해양청,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선정 보고서, 심지어는 DTIC(미국국방기술정보센터)까지 찾아보았다. 이러한 대지분석을 통해 14개의 거점을 선정하였다. 비키니 환초에 버려진 핵무기 실험 관찰병커와 흔적들, 그리고 핵무기에 의해 생겨난 기형적인 지형을 활용하여 거점을 디자인하였다.

14개의 거점에서 유토피아(Utopia)적인 공간과 디스토피아(Dystopia)적인 공간을 번갈아 가며 체험하도록 동선을 계획하였다. 즉, 핵무기 기념섬에 방문한 이들에게 ‘인간의 파괴적인 힘’과 ‘아름다운 자연의 회복력’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건인가에 대해 지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이곳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친 방문자는 핵무기 기념섬을 통해 스스로 철학적인 의미를 찾고, 지속해서 그 의미를 기억할 것이다.

필자의 작품 외에도 학생들의 심혈을 기울인 50여 개의 졸업작품이 있다. 온라인에서 만나보고 싶다면 ‘2021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 전시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2021년 9월 9일(목) ~ 9월 11일(토) 기간 동안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제1공학관 11층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아름다운 인연

세상사 인연은
억지로 되는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저절로 찾아 옵니다
인간사 헤어짐도
억지로 되는게 아니라
때가 되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세찬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지만
내안에 있는 어떤것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안에 있는 별과 같이
마음속에서 빛이 납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꺼지지 않는
별빛과 같은 인연
참 좋은 인연은
밤 하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세상사는 느낌 _ 정가원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익명성’에 대한 단상

어느 날 나는 두 개의 기사를 보았다. 하나는 어느 A 연예인이 어떤 사건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글이었다. 기사를 다 보고 댓글을 보니, 댓글에는 사람들의 욕과 비난이 심각했고, 이러한 여론을 따라 사람들은 물타기를 하여 기사와 관련 없는 이야기들까지 난무하면서 심지어 어찌저찌 많은 말을 만들어내었다. 사건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말이다.

그 기사를 보고 며칠이 지난 후 A 연예인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기사의 댓글에는 자기는 아닐 줄 알았다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A 연예인 편으로 돌아서거나, 자신은 아무 말도 안 했으며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익명악플’로 인해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였다.

익명이란 ‘자신의 이름을 숨긴다’는 뜻으로 개인 사생활 보호나 증언자의 신변보호, 익명투표 등 익명성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내가 논하고자 하는 영역인 인터넷에서도 사람들은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익명성은 자기 뜻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게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는 하지 않고 할 수 없었던 말들을 뱉는다. 정말 자신은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말이다.

누구나 자신을 향한 비난이나 비판은 감당하기 힘들다. 아무리 멘탈이 강하더라도 비난이 쌓이면 정말 자신이 문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사람 자체가 무너지기도 한다. 어떤 이는 정말 어떤 대상이 잘못하여 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다. 모두 감정을 느끼고 비난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익명성’을 뒤집어쓴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익명성은 누군가를 무너트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상처나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가져야 하는 때이다.

EPS 준불연 단열재

DK | 주디케이보드 × HDC 현대EP
공동연구개발



핵심

준불연 EPS 단열재



DK본 X

DK보드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HDC현대EP 울산PS연구소와 공동개발한 새로운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준불연 단열재 DK보드

검색



주대 광 판 벨
주디케이보드

고객센터 1855-2240